

융합적인 영어번역 캡스톤 디자인에서 미팅의 중요성

오성록

동신대학교 아동영어교육학과

The Importance of Meetings in Convergent English Translation Capstone Design

Seong-Rok Oh

Dept. of Children's English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요약 이 논문은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융합적인 영어번역학습에서 미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음으로써 캡스톤 디자인의 의의를 살리고자 전략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초기 미팅은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설명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학생주도형 미팅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과정 중에는 학생들 간에 의견발표, 사안토론, 피드백 등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주도형 미팅을, 말기에도 학생주도형 미팅을 통해 결과물에 대한 팀원 간에 조정과 확인 등의 시간이 되도록 했다.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학생주도형 미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시행했으며,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학생주도형 미팅을 통해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자신감 더 나아가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향후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하는 교수법에서는 학생주도형 미팅을 중시해야 할 것이며, 영어교육 현장에서 캡스톤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활용 및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 미팅, 융합, 캡스톤 디자인, 영어번역학습, 동기부여, 자기 효능감

Abstract This study is strategically researched to regain the signification of capstone design by correcting the errors neglected the importances of meetings in the convergent English translation capstone design. For this, intial-meetings were designed to be students-centered except for explaining some basic knowledge and information. Mid-meetings were completely students-centered for the students to present their ideas, debate the contents and give feedbacks to one another. Final-meetings were also students-centered for the students to adjust and confirm the results. To validate the importance of students-centered meetings, the qualitative study has been done through interviewing students. In the interviews, almost all of them said they had motivation, confidence, and self-efficacy. Finally attempting capstone design in the future, students-centered meetings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Hopefully this kind of capstone design will be used and studied continuedly and lively as a useful method in the field of English education.

• Key Words : Meeting, Convergent, Capstone design, English translation study, Motivation, Self-efficacy

1. 서론

학문연구 방법 특성상 대개 인문학분야 연구 활동은 개별적인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이공분야 연구 활동은 협동학습이나 공동연구가 일반적으로 많다. 인문학 분야 중 영어영문학이나 영어 교육 분야의 연구 활동은 특히 개인적인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류자미·오성록(2016)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작금의 학문연구는 협력·융합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유전자 결합처럼 근접 학문 간 결합 보다는 이종 또는 거리가 먼 학문 간의 결합이 새로운 창의성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1].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공분야나 경영학 전공에서 4학년 졸업 작품이나 프로젝트로 활용되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을 교과과정인 영어번역학습에 도입하게 되었다[2].

그러나 캡스톤 디자인을 교과과정에 도입한 취지나 배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과에서 교수나 학생들 사이에 이 교수법에 대한 회의감이 일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학생상담을 해본 결과, 그 원인이 교수의 주입식 내지는 교수주도형 수업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캡스톤 디자인은 학생들이 팀워크를 통해 하나의 작품이나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교과목에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고집한다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될 것이며 결과 또한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개념 설명과 강좌의 목표, 진행방식, 평가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 등을 설명한 후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방식을 유지하는 전략을 세웠다.

단순히 학생중심의 수업방식이라기 보다는 학생이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 도전의식을 느끼며 주도해가는 방식을 말한다. 즉, 교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팀의 방향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3, 4].

이러한 방식의 캡스톤 디자인은 영어교육분야에 생소한 단계에 있고, 현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의 연구를 살펴볼 수밖에 없어 주로 <http://capstoneconf.org>의 내용을 참고해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캡스톤 디자인은 철저하게 팀워크에 의해 진행되고, 그 팀워크는 상호 배려의 정신과 팀원 간의 의사소통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미팅은 단순한 만남의 장을 넘어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팅에 대한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미팅과 캡스톤 디자인교과목의 연관성 및 효과적인 미팅 방법이 필요하다.

2.1 캡스톤 디자인 코스의 미팅

‘캡스톤 디자인 코스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팅의 연속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미팅을 통해 스케줄관리가 이루어지고 각 사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보교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미팅이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의미를 포함한 교육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미팅을 통해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면서,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해 발표, 토론, 평가 및 피드백 등의 교육행위가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 미팅은 일반적인 기능으로서 미팅을 포함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광의적 의미의 미팅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배경은 캡스톤 디자인을 연구한 Hurst and Nespoli(2015)가 밝히고 있고, “교수의 리부미팅은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초기 반복, 문제분석, 그리고 요구사항과 전반적인 프로젝트 배경을 향상시키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업데이트 미팅의 일반적인 형식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어지는 미팅에서 동료들의 추가 피드백은 문제 개선과 대안적인 해결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5], 미팅을 전략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그 미팅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교수주도형, 학생주도형, 교수학생주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캡스톤 디자인 과정에서 미팅은 주로 학생주도형 미팅이 유효했음을 Hurst and Nespoli가 밝히고 있듯이 다른 연구자들도 학생주도형 미팅을 주장하고 있다[5, 6, 7].

캡스톤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팅이 이루어지는데, 단계별로 미팅의 내용과 주도자가 달라진다. 캡스톤 디자인의 진행과정에 따른 미팅의 의미와 형식 그리고 중요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1.1 미팅으로 시작되는 캡스톤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을 시작하려는 미팅에서는 이 코스에 참여하는 팀원들이 모여 이 코스에 대한 개요, 목적, 방법, 일정, 예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아가고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게 일반적인 목적이다[8].

이 미팅의 성격은 전문적이고 비즈니스를 위한 일련의 행위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회의 조직이나 단체의 그것처럼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충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팅 시에는 언제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관리해야 한다.

2.1.2 미팅으로 networking하는 캡스톤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에서 미팅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즈니스 미팅과 같으므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에서 벗어나 전문적(professional)이어야 한다.

2.1.1에서 언급한 미팅이 내부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었다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미팅은 주로 외부와 연관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으로서 네트워킹을 말한다.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다 보면 외부 기관이나 조직과의 협의 및 조율을 할 필요가 있고 영역을 확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1.3 미팅으로 끝나는 캡스톤 디자인

대개 마무리 미팅에서는 각 팀원의 업무 진척 정도 파악 및 독려하기, 아이디어에 대한 점검, 결과물에 대한 논의, 상호 피드백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이해와 협의를 할 수 있다[9].

특히 이 미팅에서는 교수평가나 동료평가가 이루어진다. 캡스톤 디자인의 평가는 공정하고 개방적일 수밖에 없다. 과정 중에 이미 팀원들이 상호간에 평가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어서 결과물에 대한 스폰서(sponsor)의 평가 및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학생과 스폰서 간에 상호 신뢰 정신이 필요하며 조정이 가능한(open ended) 결정을 해야 한다.

2.2 미팅의 기능

어떤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조정하며 결론에 이르면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미팅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 이러한 미팅의 기능에 대해 주로 교육학적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겠다.

2.2.1 협력학습의 공간

팀워크를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잘 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팅이다. 이 팀워크를 통해서 협력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팅 자체가 협력학습의 장이 되는 것이다.

이 캡스톤 디자인 코스는 OECD의 생애 핵심역량인, “사회적 구체적인 사태와 대상을 한 개인의 과업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 가운데서 협력하고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을 적용하여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이다[2].

캡스톤 디자인 코스를 수행하면서 참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팀원 상호간에 협력하는 학습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인간의 고등정신 기능이 발전하게 된다[2].

2.2.2 동기부여 기회

미팅을 통해서 참여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나 지식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즉, 미팅을 통해 한 팀원이 맡은 작업을 팀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고 즉석에서 피드백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어 디자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10].

동료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직·간접적 영향과 더불어 미팅 중에 받는 피드백은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능력을 재발견하거나 자신감 및 자기효능감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11].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자기효능감에서 발전된 용어로서,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면서 학습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 자신감과 믿음을 의미한다[12].

김아영(2007)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학습자가 과제를 선택하고, 과제에 쏟는 노력의 양과 질,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정도, 효과적인 학습전략의 수행 여부 등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13].

2.2.3 창의성 개발

계속되는 캡스톤 디자인 미팅은 학습자들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이 코스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모든 문제를 학습자 또는 팀 중심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이나 다양한 아이디어 미팅을 하게 됨으로써 창의적인 학습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의 목표인 자주적인 지도자 양성, 대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 또는 인성교육 등으로 귀결되는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4]. 이러한 교육효과가 가능한 것은 학습자들이 모든 사안을 자기 주도적이고 팀워크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학습자들의 장기기억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5]. 즉 어떤 문제를 학습자 각자 또는 팀이 함께 실제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선언적 지식뿐만 아니라 절차적 지식이 매우 강조되는 학습이기 때문이다[16].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창의성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학습 패턴이 반복됨으로써 선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또 다른 새로운 문제해결능력을 낳게 되는 스키마(Schema)가 형성되게 된다[17].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선순환이 반복되어 진정한 교육효과가 발생하게 된다[18].

2.3 산업체와의 미팅

캡스톤 디자인 코스는 산학협력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현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이 순수학문의 산실임을 인정하나 지나치게 학업적인 면만 추구한다면 과학 기술문명이 급속도로 변해가는 현대시대와 부조화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학과 산업현장의 요구에는 큰 괴리가 있음이 여러 조사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 팀에 참여한 학생들은 산업현장의 CEO 특강이나 실무자와의 미팅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간접적 경험을 쌓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장 적용이 용이하게 되며, 산업체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 계기가 결과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교육프로그램이 된다는 점에서 산업체와의 미팅은 매우 의미적이다.

3. 미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분석

3.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지방의 한 사립대학의 4학년들이 졸업자격을 심사받는 영어번역발표를 미리 준비하고자 링크(LINC) 사업단 캡스톤 디자인 예산을 받아 진행되었다. 총 14명이 등록했으며 7인 1팀으로 2팀이 구성되었다.

캡스톤 디자인을 영어번역연습이라는 교과목에 도입하여 기존의 영어번역수업 방법과는 다르게 운영했다. 기존에는 각자 책 한권을 선정하여 교수의 지도하에 번역한 반면에, 이 코스에서는 책 한권을 7명으로 구성된 팀이 팀워크를 통해 학기 내에 번역해내도록 했다. 기존의 영어번역수업과 영어번역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Table 1> Comparativeness of two curriculum

English Translation	Capstone Design
teacher-centered	student-centered
grammar translation method	discussion
paper-based test	peer evaluation
in class	meeting
comprehension	presentation
individually	teamwork

캡스톤 디자인 코스는 기존의 팀 프로젝트와 성격이 다르다. 팀 프로젝트는 교과목 중심의 순수한 교수학습 방법인 반면에, 캡스톤 디자인은 산업체와 연관성이 강하고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며 모든 진행절차가 회사나 조직 내부의 그것과 같다. 따라서 산업체 현장의 실무를 익힐 수 있고 회사업무를 미리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카데미한 순수성을 강조하는 여타의 교과목과 비교된다.

3.2 캡스톤 디자인 초기 미팅에 관한 인터뷰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수행했던 미팅에 대해 참여 학생들에게 인터뷰한 결과를 교수중심과 학생중심 피드백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했다. 14명의 학생들이 답한 도움 정도를 ⑤: 매우 도움이 됨, ④: 도움이 됨, ③: 보통, ②: 거의 도움이 안됨, ①: 도움이 전혀 안됨으로 분류했다.

<Table 2> Initial-interviews

helpful degree comparison targets	①	②	③	④	⑤
instructor's feedbacks	0	0	0	1	13
peers' feedbacks	0	3	10	1	0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캡스톤 디자인 과정의 시작 단계 미팅에서는 교수의 설명이 동료의 피드백보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교수에게 의존적인 기존의 다른 수업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3.3 캡스톤 디자인 과정 중의 미팅에 관한 인터뷰

이어서 다음은 학생들에게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는 중에 수행했던 미팅에 대해서 연구자의 물음에 자유롭게 응답한 인터뷰 결과이다.

<Table 3> Mid-interviews

helpful degree comparison targets	①	②	③	④	⑤
instructor's feedbacks	0	0	10	4	0
peers' feedbacks	0	0	0	1	13

진행 중의 미팅은 거의 전적으로 학생 중심의 미팅이었다. 교수도 학생과 동등하게 팀 일원으로 미팅에 참여했을 뿐 학생 토론에 개입하거나 조정자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의 미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으며 학생들을 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역할만 하였다.

이 미팅에서는 학습자의 발표 및 토론이 주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오류를 점검하거나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미팅을 통해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3.4 캡스톤 디자인 말기의 리뷰미팅에 관한 인터뷰

끝으로 마무리 미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각 학생들에게 캡스톤 디자인을 끝내면서 리뷰미팅에 대한 도움정도를 말하고 본인의 느낌이나 의견을 코멘트한 결과이다.

<Table 4> Final-interviews

helpful degree comparison targets	①	②	③	④	⑤
instructor's feedbacks	0	0	12	2	0
peers' feedbacks	0	0	0	1	13

캡스톤 디자인 말기에 시행한 리뷰미팅에 관한 인터뷰에서,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교수의 도움보다는 동료의 도움이 더 컸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몇몇 학생들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자기 효능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학생중심의 수업방식,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존중,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 낸 창의적인 결과물,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극복해낸 자부심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심리에서 발현된 것이다[19].

4.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캡스톤 디자인을 영어번역에 도입하여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생의 영어번역 캡스톤 디자인이 되도록 전략적인 미팅을 실행했다.

첫째, 캡스톤 디자인 초기과정의 미팅은 영어교육분야에 융합적인 시도를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위해 교수주도적인 미팅이 시작되었으며, 곧 이어지는 학생들의 질의응답과정과 학생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생소한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이 교과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팅 시간은 철저하게 팀조직으로 운영되는 캡스톤 디자인의 특수성 중 하나인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성이 뚜렷한 7명의 각인각색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한 팀으로 탄생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미팅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수가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일 없이 팀 중심의 일처리 및 결정준중은 팀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된다는 주권의식을 형성시켰고 실제로 더욱 어른스러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20].

셋째, 미팅은 팀원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식 및 정보 교환의 시간이 되어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한 팀

원들 서로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 취업진로의 방향 전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 등의 본질적인 동기부여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서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영어교육에 이질적인 캡스톤 디자인을 접목함으로써 학생주도형 교육이 가능성을 실험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강한 동기부여, 자신감, 자기 효능감을 체험했다는 강점이 결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장점이 강한 프로그램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수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할 때는 그 교육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끝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교육프로그램이 교육당국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교수진들도 융합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자세와 현장적용 및 사례발표 또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REFERENCES

- [1] J. M. Ryu, S. R. Oh. “A Convergence Strategy of Improving Korean Speaking Skills through Memorizing Whole Sentences and Pair Work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2, pp. 77-84, 2016.
- [2] S. R. Oh. “A Convergent English Translation Practice Using Capstone Desig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8, No. 1, pp. 1-16, 2017.
- [3] L. M. Powers, and J. D. Summers. “Integrating graduate design coaches in undergraduate design project teams”, *International Journal of Mechanical Engineering Education*. Vol. 37, pp. 3-20. 2009.
- [4] M. Paretto, R. Layton, S. Laguette, and G. Speegle. “Managing and Mentoring Capstone Design Teams: Considerations and Practices for Facul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Vol. 27, pp. 1192-1205, 2011.
- [5] A. Hurst and O. G. Nespoli. “Student Perceptions of Value of Peer and Instructor Feedback in Capstone Design Review Meetings”, 2015. May 04, 2017 retrieved from <http://capstoneconf.org/index.html>.
- [6] R. Pimmel. “Cooperative Learning Instructional Activities in a Capstone Design Cours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Vol. 90, No. 3, pp. 413-421, 2001.
- [7] V. Garouci, “Applying Peer Reviews in Software Engineering Education: An Experiment and Lessons Learned”, *IEEE Transactions on Education*, Vol. 53, No. 2, pp. 182-193, 2010.
- [8] N. Falchikov and J. Goldfinch, “Student peer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 A meta-analysis comparing peer and teacher mark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70, No. 3, pp. 287-322, 2000.
- [9] V. J. Shute, “Focus on formative feedback”,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78, No. 1, pp. 153-189, 2008.
- [10] A. Hurst. “Joint progress update meetings in capstone design courses: Encouraging peer review and cooperative learning”, in *Proceedings of the 2014 Capstone Conference*, Columbus, OH, 2014.
- [11] S. J. Kang, “L2 Learners’ Communication Strategies: A Data Convergenc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63-270, 2015.
- [12]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1977.
- [13] A. Y. Kim. “Academic Self-Efficacy: Study on Theory and Fields”, Seoul: Hakjisa, 2007.
- [14] Y. J. Kim, Y. Y. Kim, S. M.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Children’s English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 39-47, 2015.
- [15] W. Roth & A. Roychoudhury. “The development of science process skills in authentic context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0, pp. 127-152, 1993
- [16] S. D. Kim “The 7th Curriculum and Field-Learning”, *Gyeonggi Education* 148, pp. 13-18, 2000.

- [17] H. S. Lee. “Convergent Study of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Addiction to Smartphones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Stress Level and Mental Health as Mediating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1, pp. 139-148, 2017.
- [18] Y. S. Kim. “A Study of Smart Convergence Design of English Vocabulary Learning Contents Applying the Periodic Repetitive Method”,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133-140, 2016.
- [19] J. Bransford. “Preparing People for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Vol. 96 No. 1, 1-3, 2007.
- [20] C. M. Reigeluth.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 An overview of their current statu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83.

저자소개

오 성 록(Seong-Rok Oh) [정회원]



- 1989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문학석사)
- 1995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박사수료)
- 2006년 2월 : 전주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문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아동영어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어교육, 비평